

『禪門拈頌說話』의 인용 문헌과 사상적 특징

Cited literatures and Ideological Characteristics of 『SeonMoonyeomsongseolhwa(禪門拈頌說話)』

저자 (Authors)	조명제 Cho, Myung-Je
출처 (Source)	역사와경계 108 , 2018.9, 67-104 (38 pages) History & the Boundaries 108 , 2018.9, 67-104 (38 pages)
발행처 (Publisher)	부산경남사학회 Pusan-Kyungnam Historical Societ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539181
APA Style	조명제 (2018). 『禪門拈頌說話』의 인용 문헌과 사상적 특징. 역사와경계, 108, 67-104.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210.178.101.*** 2020/03/18 10:54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禪門拈頌說話』의 인용 문헌과 사상적 특징*

조 명 제**

■ 목차	I. 머리말
	II. 『선문염송설화』의 인용 문헌 분석
	III. 『선문염송설화』와 공안선의 이해
	IV. 맺음말

■ 국문초록

『염송설화』는 각운이 『선문염송집』에 대한 주석서 내지 해설서로 저술한 문헌이다. 이 책은 『선문염송집』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고려후기 이후 공안선이 어떻게 수용되고 이해되었는가를 해명하는 데에 중요한 선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송설화』의 저자, 찬술 시기, 내용과 사상적 의미 등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 연구는 『염송설화』에 인용된 문헌을 분석하여 문헌적 성격과 사상적 특징을 밝혔다. 『염송설화』에는 불전과 그 주석서, 선적, 외전 등 다양한 문헌이 폭넓게 인용되었다. 이러한 문헌은 선의 용어에 대한 주석, 공안 비평과 관련된 배경, 근거, 이해 등과 관련된다. 이 가운데 선적은 전등사서, 공안집, 어록, 평창록 등 다양한 종류가 확인되며, 『염송설화』에 가장 많이 인용된 문헌이다.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 2014S1A5A2A01062967).

** 신라대 역사문화학과 교수 / woongok@silla.ac.kr

선적은 송대선의 특징인 공안선의 흐름을 반영하는 문헌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염송설화』는 12~13세기에 고려 선종계에서 공안선이 수용되는 경향을 반영한 문헌이며, 특히 문자선이 성행되었음을 보여주는 저술이다. 또한 인용 문헌을 통해 각운이 저술한 시기는 13세기 후반에서 14세기 초기 사이로 추정된다.

한편, 다양한 선적 가운데 『조정사원』, 『벽암록』, 『종용록』 등이 가장 많이 인용되고 증시된 문헌이다. 『조정사원』은 『염송설화』의 구성과 주석의 서술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인용 문헌을 통해 비교해보면 각운은 목암의 사상적 경향과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경향은 교선일치론에 대한 입장의 차이, 두 선적의 문헌적 성격의 차이 등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인다.

각운은 『벽암록』, 『종용록』 등의 평창을 가장 많이 인용하였는데, 원오와 만송의 공안 비평이나 해석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각운은 『벽암록』에서 공안 비평의 폐단이나 무사선의 한계를 지적하는 내용을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향은 『염송설화』가 문자선에 대한 관심과 이해에 초점을 맞춘 문헌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한편, 『종용록』의 평창 인용이 단순 인용에 그치거나 만송의 평창에서 드러나는 조동종의 사상적 경향을 반영하지 못한 것은 각운의 공안 비평이 갖는 한계를 보여준다.

주제어 『선문염송설화』, 『선문염송집』, 문자선, 『벽암록』, 『종용록』, 『조정사원』

I. 머리말

『선문염송설화』(이하 『염송설화』)는 『선문염송집』에 수록된 고척 공안과 각종 착어에 대한 주석서 내지 해설서로 찬술된 문헌이다. 『염송설화』는 『선문염송집』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고려 후기 이후 공안선이 어떻게 수용되고 이해되었는가를 해명하는 데에 중요한 선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송설화』의 저자, 찬술 시기, 내용과 사

상적 의미 등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¹⁾

『염송설화』에는 다양한 선의 용어에 대한 주석, 각종 공안 비평에 대한 설명과 저자의 독자적인 해석 등이 서술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각종 선적을 비롯한 불전과 외전 등 다양한 문헌이 인용되어 있다. 이러한 인용 문헌에 대한 분석은 『염송설화』의 문헌적 성격을 해명하기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저자, 찬술 시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도 관련된다.

저자 覺雲에 대해서는 『염송설화』의 雪岩秋鵬의 발문에 따라 고려 말에 활동하였던 龜谷覺雲으로 보는 견해가 있지만 동명이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²⁾ 그리하여 각운을 혜심의 직제자로 보는 견해가 제시되었고 근래의 연구에 대부분 수용되었다.³⁾ 그 근거로는 1538년에 宇宙翁이 쓴 「古拈話跋」과 1686년에 了父가 쓴 「重刊拈頌說話序」에 혜심이 『선문염송집』을 집성한 후에 각운에게 전하였다는 기록⁴⁾, 『염송설화』에 혜심의 저술에 실려 있지 않은 無衣子 頌이 22수 수록되어 있는 사실 등이 제시되었다.⁵⁾

- 1) 석종진, 「각운의 『선문염송설화』 연구(Ⅰ)」 『가산학보』 4(1995)에서 서지적인 소개를 중심으로 한 연구 성과가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근래에 『선문염송집』과 함께 일부 다루어진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동준, 「고려 혜심의 간화선 연구」(서울: 동국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이점숙, 「혜심의 『선문염송』 연구」(서울: 동국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정천구, 「해제」 『선문염송염송설화』(부산: 육일문화사, 2009), 조영미, 「『禪門拈頌』의 공안 조직 양상과 언어 활용 연구」(서울: 성균관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박재현, 「『선문염송집』과 『선문염송설화』의 텍스트성」 『한국선학』 42(2015); 박영록, 「고려본 『선문염송』과 『염송설화』의 역주에 대한 일검토-제1권을 중심으로-」 『한국선학』 42(2015).
- 2) 이능화, 『朝鮮佛敎通史』 下編(京城: 신문관, 1918), 528~530쪽.
- 3) 忽湑谷快天, 정호경 역, 『朝鮮禪敎史』(서울: 보련각, 1978), 304~305쪽. 근래에는 주 1)에 제시된 석종진, 정천구, 조영미 등의 논문에서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 4) 『한국불교전서』(이하 『한불전』) 5(서울: 동국대 출판부, 1983), 924쪽, 2쪽.
- 5) 또한 『진각국사어록』에 혜심이 각운에게 준 글(「示覺雲上人」, H6-28)을 근거로 혜심과 각운을 사제 관계로 보기도 한다. 그러한 개연성도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근거만으로 각운을 혜심의 직계 제자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저자인 각운의 서문이 현재 남아 있지 않고, 저자와 관련된 행적을 알 수 있는 기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간접적인 정황을 전해주는 서술뿐이다. 더욱이 『선문염송집』의 편찬과정에 각운이 참가한 사실을 알 수 없고, 무의자 송이 수록된 사실만으로 각운을 혜심의 제자로 단정하기도 곤란하다. 또한 현존 판본이 모두 조선후기에 간행되었고, 초간본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으므로 『염송설화』의 찬술 시기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다만 『염송설화』가 『선문염송집』의 주석서이기 때문에 찬술 시기를 추정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염송설화』의 찬술 시기에 대한 이해는 인용 문헌의 기초적인 분석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러한 문헌학적 기초 연구는 『염송설화』의 문헌적 성격과 사상적 특징이 무엇인가를 해명하는 것과 연관된다. 다만, 『염송설화』는 양적으로 방대할 뿐만 아니라 내용 분석이 송대 공안선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구 자체가 쉽지 않다. 더욱이 『염송설화』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므로 이 글에서는 『염송설화』의 인용 문헌에 대한 기초 분석을 통해 저술 시기와 문헌적 특징을 밝혀보고자 한다.

II. 『선문염송설화』의 인용 문헌 분석

각운은 『염송설화』에 다양한 선어에 대한 주석과 공안 비평을 하면서 방대한 문헌을 활용하고 있다. 필자는 『염송설화』에 어떠한 문

이 글의 각운과 『염송설화』의 저자 각운을 동일 인물이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헌이 인용되었는가를 모두 분석하여 뒤의 <표1>로 제시하였다. 인용 문헌은 불전과 외전으로 나눌 수 있으며, <표2>로 정리한 것과 같이 인용 불전의 다수는 선적이다. 이러한 구분에 따라 인용 문헌의 내용과 성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불교 경전과 각종 주석서가 풍부하게 인용되었다. 경전은 초기 불전인 『阿含經』과 같은 초기 불전에서 대승불전, 위경까지 대단히 다양하다. 그러나 인용된 횟수나 내용을 검토하면 『華嚴經』, 『楞嚴經』, 『圓覺經』, 『維摩經』, 『金剛經』 등 선종에서 중시하던 경전이나 관련 주석서가 주로 중시되었다. 각운이 각종 불전과 주석서를 폭넓게 인용한 것은 그 자신이 불교 교학의 소양을 갖추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이러한 소양은 공안 비평과 재해석을 위해서는 폭넓고 정확한 훈고학적 지식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외전으로는 『詩經』, 『論語』, 『左傳』, 『周易』 등 유교 경전과 『老子』, 『莊子』, 『抱朴子』, 『黃庭經』, 『列子』 등 도교를 비롯한 제자백가서 등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史記』, 『漢書』 등을 비롯한 역사서와 함께 『杜詩』를 비롯한 각종 시집, 『太平廣記』, 『太平御覽』을 비롯한 유서 등이 적지 않다. 아울러 陳翰의 『異聞集』, 志怪書인 王嘉의 『拾遺記』, 劉崇遠의 『金華子』, 전기소설인 羅輝의 『醉翁談錄』 등 다양한 문헌이 인용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외전이 전거로 활용된 것은 후술하듯이 『조정사원』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외전의 활용은 송대 선종에서 문자선이 유행하면서 공안 비평과 관련된 다양한 전고가 많이 활용되었던 경향과 관련된다.⁶⁾

셋째, 선적은 <표2>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가장 많이 활용된 문헌이다. 또한 선적의 종류는 공안집, 전등사서, 어록, 계송 등 다양하지

6) 송대선은 공안선으로 대표되며, 文字禪과 看話禪으로 나눌 수 있다. 문자선은 공안의 비평과 재해석을 통해 禪理를 밝히는 것이며, 간화선은 특정한 공안에 모든 의식을 집중시켜, 그 한계점에서 마음의 激發, 大破를 통해 극적인 깨달음의 체험을 얻고자 하는 방법이다.(小川隆, 『續·語錄のこゝとば』『碧巖錄』と宋代の禪(京都: (財)禪文化研究所, 2010); 『語錄の思想史』(東京: 岩波書店, 2011) 참조).

만, 송대에 저술되거나 편찬된 문헌이 대부분이다. 이 가운데 전등사서는 『조당집』, 『경덕전등록』, 『천성광등록』, 『오동회원』 등이 인용되었지만, 『경덕전등록』을 활용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고척공안의 선사들이 주로 唐代에 활동하였던 경우가 대부분이고, 『경덕전등록』은 전등사서의 대표적인 문헌이므로 중시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공안집은 『종문통요집』, 『정법안장』 등이 있지만 인용 횟수는 많지 않다. 그것은 『선문염송집』이 고척공안을 방대하게 집성한 공안집이기 때문에 다른 공안집을 활용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에 공안 평창록인 『벽암록』, 『격절록』, 『종용록』, 『칭익록』 등이 폭넓게 활용되고 중시되었다.

어록은 『大慧語錄』, 『馬祖錄』, 『洞山語錄』, 『臨濟錄』, 『黃蘗傳心法要』, 『龐居士語錄』, 『宏智錄』 등 다양하게 활용되었으나 인용 횟수가 많지 않다. 이러한 경향은 공안집과 마찬가지로 어록 자료가 『선문염송집』의 본칙과 착어로 폭넓게 인용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짐작된다.

한편, 종파로 나누어 보면, 임제종의 선적이 가장 많지만, 운문종, 조동종, 법안종 등의 선적도 적지 않다. 운문종의 선적은 『종문통요집』, 『조정사원』, 『선원청규』, 『通明集』⁷⁾ 등이 있다. 조동종의 선적은 만송행수의 『종용록』, 『칭익록』, 『조동록』과 함께 『중편조동오위』, 「참동계」, 「보경삼매」, 「완주음」 등 다양하게 보인다. 이외에 법안종의 문헌은 『경덕전등록』과 함께 永明延壽의 『종경록』, 『심부주』 등이 활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송의 대표적인 종파의 선적이 다양하게 활용된 것은 송대 공안선의 흐름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염송설화』에 인용된 문헌의 종류와 성격에 대해 살펴보았다. 각운이 다양한 외전, 불전을 인용하여 각종 선어에 대한 주석을 제시하는 형식이나 설명 방식은 『조정사원』의 그것과 유사하다. 실제 『염송설화』에는 『조정사원』에서 직접 인용한 주석도 적지 않다. 각운

7) 이 책은 운문종의 天衣義懷가 저술한 것이며, 현재 전하지 않는 문헌이다. 『嘉泰普燈錄』 297c22, “紹興府天衣義懷禪師, 師嘗設百問勘驗學者, 今載其二. 又撫古今尊宿契悟因緣, 號通明集, 盛行於世. 崇寧中, 謚振宗大師.”

은 『조정사원』이라는 출전을 밝히지 않은 경우도 많고, 다른 문헌을 전거로 제시한 경우에도 실제로는 『조정사원』에서 인용한 경우도 적지 않다.

한편, 각운이 이용한 선적은 송대에 간행된 판본을 주로 활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북송 시기에 목판 인쇄술이 확산되면서 그 이전에 성립되었던 주요한 선적이 엄밀한 교정을 거쳐 서사본에서 간행본으로 널리 출판되었다. 고려 선종에서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간행된 송대 선적이 입수되면서 송대선에 대한 이해가 확산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염송설화』에 북종선이나 초기 선종에 속하는 문헌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도 활용된 선적이 주로 공안선과 관련된 문헌이라는 사실에서 잘 드러난다.

고려 선종계에서 송대선을 수용하고 이해하는 흐름은 이러한 송대 선적을 입수하여 간접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주된 방식이었다.⁸⁾ 『염송설화』에 인용된 선적도 이러한 경향을 잘 보여준다. 예를 들어 「參同契」⁹⁾, 「寶鏡三昧」¹⁰⁾, 「翫珠吟」¹¹⁾, 「十玄談」¹²⁾, 「釋迦如來成道記」¹³⁾ 등은 단독으로 간행되거나 다른 문헌에 수록된 것보다 『禪門諸祖師偈

8) 조명제, 『선문염송집 연구』(서울: 경진출판, 2015), 328~329쪽.

9) 『참동계』는 石頭希遷(700~790)의 저술이며, 『祖堂集』을 비롯한 여러 선적에 수록되어 있다. 이 선서는 『보경삼매』와 함께 조동종에서 중시된 선적이지만, 중국에서 별로 유행하지 않고 일본 조동종에서 주로 유행하였다.(椎名宏雄, 「參同契」의性格と原文, 『宗學研究』 23(1981), 189~195쪽).

10) 洞山良价(807~869)의 찬술로 알려져 있으나 雲巖曇晟의 찬술로 보는 설도 있다. 고려본 『景德傳燈錄』, 『洞山語錄』 등에 수록되어 있다.(椎名宏雄, 「寶鏡三昧」의諸本, 『第11回曹洞宗總合研究センター學術大會紀要』(2010), 59쪽).

11) 丹霞天然(739~824)이 지은 작품으로 돈황본, 『祖堂集』, 『경덕전등록』 등에 수록되어 있다.

12) 同安常察(?~961)이 선의 원리를 心印, 祖意 등 十玄에 각각 7언율의 송을 붙인 것이며, 『경덕전등록』에 수록되어 있다.

13) 王勃(647~675)이 석가모니가 교화한 행적을 지은 것이며, 『全唐文』에 수록되어 있다.

頌』을 통해 읽혔던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송의 子昇과 如祐가 편집하고, 남송 福州 開元寺의 수좌였던 대혜파의 道永이 증보하였던 선적이다. 이 책은 당, 송 시기의 84종 작품을 수록하였는데, 제목과는 달리 각종 계송과 함께 선문의 어구, 산문 종류가 1/3을 넘는다.¹⁴⁾

한편 이러한 선적은 송대에 얽고, 송고 등 공안 비평이 성행되면서 편찬된 문헌이다. 이러한 경향에 따라 북송 중기 이후에 다양한 공안 주석서와 평창록이 출현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염송설화』에도 마찬가지로 반영되어, <표2>에서 드러나듯이 선적 가운데 가장 많이 인용되거나 증시된 『조정사원』, 『벽암록』, 『종용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먼저 『염송설화』에 드러난 각운의 문헌 활용 방식과 수준을 보기로 한다.

『염송설화』에 각종 선어와 공안 비평과 관련된 전거로 다양한 문헌이 활용되어 있으므로 각운이 선사상뿐만 아니라 불교 교학, 나아가 다양한 외전에 대한 지식도 폭넓게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비슷한 시기에 활동하였을 것으로 추측되는 일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그것은 이들이 문자선에 대한 관심이 높고 그에 대한 이해가 깊었던 양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편, 각운은 『염송설화』에 각종 용어와 전고, 나아가 공안 비평과 관련된 다양한 문헌을 인용하면서 출전을 잘못 표기한 경우가 보인다. 예를 들어 『염송설화』 12칙에 『완주음』에서 인용한 구절이라고 하였으나 이 부분은 「杭州五雲和尚坐禪箴」에서 인용한 것이다.¹⁵⁾

14) 椎名宏雄, 「『禪門諸祖師偈頌』の文獻的考察」 『田中良昭博士古稀記念論集-禪學研究の諸相』(東京: 大東出版社, 2003), 222~223쪽.

15) 『景德傳燈錄』, T51-460a. 한편, 469칙에 인용한 「翫珠吟」은 『禪門諸祖師偈頌』(X66-743c)에서 인용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修心訣』(H4-708b9)의 원문과 동일하므로 각운이 후자를 통해 인용하였던 가능성이 있다. 비슷한 사례로 1칙에 수록된 「決疑論後記」(T36-1048c28)는 張商英이 1088년에 方山 昭化院에서 기록했던 것인데, 知訥의 『華嚴論

119칙에 『四家錄』으로 표기된 부분도 실제로는 『重編曹洞五位』(X63-200a)에서 인용한 것이다. 또한 147칙에 『天聖廣燈錄』에서 인용한 것으로 표기한 것이나 895칙에 『禪林僧寶傳』에서 인용한 것으로 제시된 것도 그러한 내용이 없으므로 착오로 보인다. 이러한 부분적인 오류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염송설화』에서 전고를 인용하는 방식이나 문헌학적 이해 수준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염송설화』에 인용된 문헌이나 각운의 서술 방식 등을 통해 찬술 시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먼저 인용 선적이 대부분 송대에 찬술, 편찬되거나 간행되었고, 이러한 문헌이 성행되었던 시기는 고려후기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14세기 중반 이후에 간화선 일변도의 흐름으로 나아가면서 문자선이 퇴조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향에 따라 문자선의 이해와 관련된 문헌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염송설화』에 인용된 선적의 종류나 공안 비평과 재해석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이해는 모두 이 문헌이 문자선의 극성기에 찬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안 비평이 유행하던 단계에서는 다양한 문헌이 출현하고 간행되었지만, 간화선으로 집약되면 그러한 문헌에 대한 수요가 사라지기 때문에 점차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이러한 사상적 흐름과 함께 『염송설화』의 찬술 시기를 추정하는 데에는 13세기 후반의 선종계를 주도하였던 가지산문의 동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듯이 가지산문을 대표하는 일연, 훈구 등의 저작에서 문자선에 대한 관심이 깊게 드러난다. 일연은 고종 43년(1256)에 남해 길상암에 주석하면서 『重編曹洞五位』를 편찬하였다. 또한 그는 현전하지 않지만 『偈頌雜著』(3권), 『조정사원』(30권), 『禪門拈頌事苑』(30권) 등의 저술을 남겼다. 『偈頌雜著』(3권)는 제목 그대로 일연의 송고가 집성된 문헌으로 보인다.

특히 『조정사원』(30권)은 일연이 목암의 『조정사원』(8권)을 본받아

節要』(H4-868)에도 전제되어 있다.

편찬한 문헌으로 보인다. 일연은 1108년에 편찬된 『조정사원』이 운문종에 초점이 맞추어진 선적이고, 12세기 이후 송대 선종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문헌적 한계를 인식하고 문자선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사전적인 저작으로서 30권본 『조정사원』을 찬술한 것으로 추측된다. 마찬가지로 『禪門拈頌事苑』(30권)은 『선문염송집』의 주석서 내지 해설서로 저술된 것으로 보인다.¹⁶⁾

이와 같이 일연의 선에 대한 이해가 문자선 중심이었으며, 그와 관련된 방대한 저작을 남길 정도로 문자선에 대한 이해가 깊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일연을 계승한 寶鑑國師 混丘(1251~1322)의 저술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혼구의 저술이 모두 현전하지 않지만, 그의 비문에 『重編拈頌事苑』(30권), 『歌頌雜著』(2권) 등이 주요 저작으로 서술되어 있다.¹⁷⁾ 이 가운데 『중편염송사원』은 제목으로 보아 일연의 『선문염송사원』에 대한 보완한 문헌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일연, 혼구로 대표되는 가지산문은 13세기 후반에서 14세기 초까지 선종을 주도하였던 만큼 문자선이 여전히 성행하였던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13세기 고려 선종계에서 문자선을 중심으로 한 공안선이 성행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선사나 가지산문과 같이 선종을 주도하였던 선문에서 문자선이 성행하였고, 그러한 경향을 반영한 저작이 다양한 공안 주석서의 저술로 이어졌다. 이러한 전반적인 흐름을 감안하면, 각운의 『염송설화』는 13세기 후반에서 14세기 초에 저술된 문헌으로 보인다.

16) 조명제, 『선문염송집 연구』, 330~336쪽.

17) 李齊賢, 「瑩源寺寶鑑國師碑銘」 『東文選』 권118.

Ⅲ. 『선문염송설화』와 공안선의 이해

앞서 『염송설화』에 인용된 문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찬술 시기와 문헌적 성격에 대해 살펴보았다. 『염송설화』는 다양한 용어와 전고를 밝히는 주석의 형식과 내용에서 『조정사원』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인용 문헌을 통해 보면 『염송설화』와 『조정사원』의 사상적인 차이도 드러난다. 목암은 『조정사원』에 외전, 불전 등 다양한 문헌을 전거로 활용하였다. 외전은 『漢書』, 『莊子』, 『說文解字』, 『論語』, 『春秋』, 『爾雅』, 『史記』, 『釋名』 등 총 247종의 문헌이 425항목에 활용되고 있다. 양적으로 보면 외전의 인용이 불교 전적보다 더 많다.

내전을 전거로 하는 경우는 선적을 제외하고 『능엄경』, 『화엄경』, 『법화경』 등 총 85종의 불전이 186항목에 이용되고 있다. 목암은 法藏, 澄觀의 화엄 주석서의 인용이 많았는데, 특히 징관의 화엄학에 대한 관심이 깊었다. 반면에 목암은 圭峯宗密, 永明延壽, 李通玄 등을 철저하게 무시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화엄과 선의 융합을 지향하고 교선일치론을 제기하였던 공통점이 있다.¹⁸⁾

이에 비해 각운은 『염송설화』에 징관의 주석서도 인용하지만, 규봉종밀, 영명연수, 이통현 등의 저술을 훨씬 많이 인용하고 있다. 각운이 특별히 교선일치를 강조하고 있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교선일치론을 표방하는 주석서를 많이 활용하였던 것은 그 자신의 사상적 경향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목암이 외전과 일반 불전을 폭넓게 활용한 것은 『조정사원』이 대상으로 하는 선적에 대한 훈고서라는 성격과 관련된다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염송설화』는 선적의 활용이 적지 않은데, 용어에 대한 주석보다 공안 비평과 재해석에 초점이 맞추어진 해설서라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조정사원』은 13세기 고려 선종에서 다양하게 수용되었고, 문자선

18) 永井政之, 「祖庭事苑の基礎的研究」 『駒澤大學佛教學部論集』 4(1973), 80~82쪽.

의 이해와 관련하여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瑞龍禪老連公의 『南明泉和尚頌證道歌事實』은 『남명천화상송증도가』에 대한 주석서로 1248년에 분사대장도감에서 간행되었는데, 『조정사원』과 비슷한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다.¹⁹⁾ 또한 志謙이 중국 선문의 圓相에 관한 옛 기록을 수집하고 편찬하여 1219년에 간행한 『宗門圓相集』도 마지막에 목암과 관련된 인용은 『조정사원』 권2의 원상 관련 조항과 관계가 있다.

이어 13세기 후반의 선종을 주도하였던 가지산문에서 일연이 『조정사원』(30권)을 저술하였고, 그를 계승한 혼구의 『중편염송사원』(30권)도 『조정사원』의 영향을 받은 저작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조정사원』에 대한 관심이 고려 선종계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졌는데, 그것은 문자선이 성행하면서 그에 대한 주석서에 대한 수요도 다양하게 존재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각운의 공안 비평과 해석이 어떠하며, 공안선에 대한 이해 수준이 어떠한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은 『염송설화』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하지만 내용 자체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벽암록』, 『중용록』과 같이 송의 대표적인 평창록에서 인용된 내용이나 그와 관련된 각운의 해석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송대의 대표적인 평창록은 흔히 4가 評唱錄이라고 한다. 4가 평창록은 雪竇重顯, 宏智正覺, 投子義青, 丹霞子淳 등의 송고 100칙에 대해 圓悟克勤(1063~1135), 萬松行秀(1166~1246), 林泉從倫 등이 각각 평창 등을 붙여 만든 작품이다.²⁰⁾ 곧 원오의 『벽암록』²¹⁾, 만송의 『중용록』과 함께 임천의 『空谷集』(1285년), 『虛堂集』(1295년)을 가

19) 조명제, 「고려 후기 공안선의 수용과 『남명천화상송증도가사실』」 『불교학연구』 50(2017) 참조.

20) 椎名宏雄, 「元版『四家錄』とその資料」, 『駒澤大學佛教學部論集』 10 (1979), 227쪽.

21) 정확한 명칭은 『佛果圓悟禪師碧巖錄』(10권)이며, 『碧巖集』이라고도 한다.

리킨다.²²⁾ 설두송고에 대한 평창록인 『벽암록』이 임제종을 대표하는 평창록이고, 만송과 임천의 저작은 조동종을 대표하는 평창록이다.

『벽암록』은 원오가 『설두송고』에 대해 강의한 것을 제자들이 모아 편집하여 1125년에 간행하였다. 『벽암록』은 각 칙마다 서언에 해당하는 垂示, 설두가 고른 고칙 공안인 본칙, 원오의 착어, 설두의 송고, 본칙과 송고에 대한 원오의 평창이라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²³⁾ 만송은 『벽암록』을 모방하여, 『宏智頌古』의 각 고칙에 대해 示衆, 著語, 評唱을 붙여 완성한 평창록이 『從容錄』이다.²⁴⁾ 또한 만송은 『宏智拈古』에 평창한 『請益錄』을 저술하였으며, 현전하지 않지만 『祖燈錄』도 저술하였다.²⁵⁾

『염송설화』에 임천의 『공곡집』과 『허당집』은 인용되지 않았고, 대신 원오의 『佛果圓悟擊節錄』(이하 『격절록』)²⁶⁾, 만송의 『請益錄』, 『祖燈錄』 등이 출전으로 활용되어 있다. 『격절록』²⁷⁾이 『염송설화』에

22) 북송에 이르러 조동종은 쇠퇴하였으나 投子義青-芙蓉道楷-丹霞子淳으로 이어지면서 서서히 부활하였다. 이어 단하의 문하에서 眞歇清了와 宏智正覺 등이 배출되어 조동종이 발전하였다. 이후 금의 지배하에 있던 화북의 北傳 조동종을 대표하는 인물이 만송행수이며, 그의 문하에서 임천종륜이 배출되었다.(石井修道, 『宋代禪宗史の研究』(東京: 大東出版社, 1987), 234~294쪽).

23) 『벽암록』의 현행 판본은 모두 원의 大德 4년(1300)에 張明遠이 개관한 판본을 祖本으로 하고, 약간의 異同이 있지만 유포본이라 한다. 그 이전의 형태를 전하는 유일한 사본이 도겐이 일본에 가져온 『佛果碧巖破關擊節』이다.(末木文美土, 「『碧巖錄』の諸本について」 『禪文化研究所紀要』 18(1992) 참조).

24) 椎名宏雄, 「『從容錄』諸本の系統」 『宗學研究』 39(1997), 263쪽.

25) 『角虎集』 卷上, 萬松行秀禪師章(X62-202b)에 祖燈錄 62권을 편찬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五燈全書』 권61 行秀章(X82-256b)에도 저작으로 『조동록』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26) 원오의 저작은 『圓悟佛果禪師語錄』(20권), 『佛果圓悟眞覺禪師心要』(2권) 등이 남아 있다. 椎名宏雄, 「圓悟の『語錄』と『心要』の諸本」 『印度學佛敎學研究』 45-1(1996) 참조.

27) 『격절록』은 설두중현의 拈古百則에 원오가 착어, 평창을 더해 저술한 것이다. 『격절록』이 언제 간행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개 『벽암록』과

단 1회 인용된 것에 비해 『벽암록』²⁸⁾이 전체 37칙에 인용되어 있으므로 각운에게 중시되었던 선적임을 알 수 있다. 만송의 경우도 『청익록』, 『조등록』²⁹⁾이 일부 인용되는 데에 그친 반면에 평창록인 『중용록』이 적지 않게 인용되었다.

현존하는 자료를 통해 볼 때에 고려 후기 선종계에서 『벽암록』이 중시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³⁰⁾ 그런데 『염송설화』에 『벽암록』이 적지 않게 인용되어 있으므로 각운이 『벽암록』을 어떻게 인용하고 이해하는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염송설화』에 『벽암록』, 『중용록』에서 인용된 내용은 시중, 착어, 평창 등 다양하지만 평창에서 인용된 것이 가장 많다.

『벽암록』에서 원오의 평창은 분량이 많고 내용도 대단히 중요하다. 원오는 평창에서 다른 일화와 문답을 인용하면서 자주 동시대의 통설을 비판하면서 본칙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강조하고 있다.³¹⁾ 그것은 당시 송대 선이 직면한 과제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주지하듯이 馬祖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 28) 『벽암록』은 중국, 한국에 비해 일본에서 대단히 많이 간행되었다. 특히, 『벽암록』의 주석서는 유독 일본에서 많이 저술되었다.(駒澤大學圖書館編, 『新纂禪籍目録』(東京: 駒澤大學圖書館, 1962), 426~432쪽.) 에도시대 이전의 저술만을 헤아려도 50종을 넘을 정도이다.(末木文美士, 「『碧巖錄』の注釋書について」 『松ヶ岡文庫研究年報』 7(1993) 참조).
- 29) 『조등록』은 『禪門寶藏錄』 권중 32, 47에 출전으로 인용되어 있다.
- 30) 『벽암록』은 『禪門寶藏錄』 卷中에 1회 인용(『한불전』 6, 477쪽)되어 있으나 다른 문헌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한편, 최남선이 충숙왕 4년(1317)에 간행된 『벽암록』을 소장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고려시대에 『벽암록』이 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朝鮮佛敎典籍展覽會目録』 p.14 (椎名宏雄, 『宋元版禪籍の研究』, 東京: 大東出版社, 1993, 67쪽에서 재인용). 그러나 현재 실물이 남아 있지 않으며,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www.nl.go.kr/korcis)이나 다른 고서목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다. 『벽암록』은 세조 11년(1465)에 간행된 활자본, 1526년에 간행된 목판본 정도가 확인되며, 조선시기도 별로 간행되지 않았다.(藤本幸夫, 「大東急記念文庫藏朝鮮版について(下)」 『かがみ』 22(1987), 송정숙, 「『불과원오선사벽암록』의 편찬과 수용」 『서지학연구』 60(2014) 참조).
- 31) 小川隆, 『語錄の思想史』, 152~155쪽.

禪으로 대표되는 唐代 선의 기조는 본래 ‘作用卽性’과 ‘無事’가 ‘卽心是佛’이라는 근본이념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제시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당대 선은 본래 있는 그대로의 본성(=佛性)을 강조하므로 수행도 깨달음도 필요 없다고 주장하게 되면서 부정적인 폐단을 초래하였고, 송대 선승들은 이러한 주장을 비판적인 어감에서 無事禪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무사선의 풍조는 송대 선종계에서도 폭넓게 확산되었으며, 그에 대한 비판이 북송 대에 서서히 제기되었다.³²⁾ 원오는 진정극문과 오조법연의 영향을 받아 무사선에 대한 비판의 관점을 획득하였다. 이와 함께 송대선에서 선문답이 탈의미적, 몰논리적인 것으로 변화하면서 남송 시기에 이르러 통속화되는 폐해가 확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오는 『벽암록』의 착어와 평창을 통해 신랄한 비평을 더하였고, 그것은 공안 비평이라는 형식에 그친 것이 아니라 무사선에 빠진 송대 선의 흐름을 새로운 방향으로 제시되었다.³³⁾

그것은 결국 무사선에 반대하면서 학인에게 철저하게 깨달을 것으로 요구하는 방향으로 귀결되었다. 다만 그러한 깨달음의 체험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벽암록』에서 하나의 명확한 초점으로 제시되지는 않았다. 다만, 자각적인 하나의 방법에 집약되면 필연적으로 간화선에 귀결될 것이라는 요소가 원오의 평창에 싹트고 있었다. 따라서 『벽암록』은 북송의 문자선을 집대성하면서, 그것을 간화선으로 전환하는 단초를 연 문헌이었다. 다시 말해 『벽암록』은 문자선의 도달점이면서 동시에 간화선의 기점이기도 한 문헌이었다.³⁴⁾

32) 西口芳男, 「黃龍慧南の臨濟宗轉向と泐潭懷澄-附録『宗門撫英集』の位置とその資料的價值」 『禪文化研究所紀要』 16(1990), 石井修道, 「眞淨克文の人と思想」 『駒澤大學佛教學部研究紀要』 34(1976), 土屋太祐, 「眞淨克文の無事禪批判」 『印度學佛教學研究』 51-1(2002) 참조.

33) 土屋太祐, 「北宋期禪宗の無事禪批判と圓悟克勤」 『東洋文化』 83(2003); 「公案禪の成立に關する試論 -北宋臨濟宗の思想史-」 『駒澤大學禪研究所年報』 18(2007) 참조.

34) 小川隆, 『語錄の思想史』, 248~283쪽.

그런데 『염송설화』에는 『벽암록』에서 원오가 무사선을 비판하거나 공안 비평의 한계를 지적하는 내용이 전혀 인용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각운은 『염송설화』 410칙의 평창에 『벽암록』을 인용하면서 본래 무사선을 비판하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인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향은 각운이 『벽암록』의 평창에 대한 관심이 문자선에 초점이 맞추어졌던 것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각운은 원오가 『벽암록』의 평창을 통해 강조하였던 무사선에 대한 비판이나 간화선으로 귀결되는 강렬한 실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각운은 『염송설화』에 『벽암록』, 『종용록』의 평창을 하면서 새로운 비평을 하거나 재해석하는 경우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 각운이 평창록에서 특정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스타일은 선승들의 인용 방식과 마찬가지로 옛 조사들이 표현한 구절에 공감하면 그대로 인용하는 방식을 따른 경우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공안 해설서라는 성격을 감안하면, 이러한 설명으로만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다시 말해 『선문염송집』의 본칙 내용 가운데 특정한 어구를 해설하기 위한 대표적인 공안 비평 해설로서 이러한 평창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물론 각운이 이러한 구절을 단순하게 인용한 것이 아니라 본칙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대표적인 공안 비평으로서 이러한 평창을 소개한 것이며, 그러한 내용에 대한 깊은 이해나 공감을 갖고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염송설화』에서 이러한 평창에 대한 이해가 얼마만큼 깊이 있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설명이 별로 없다.

여기서는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종용록』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선문염송집』 684칙에 대한 해설에서 각운은 평지정각의 송, 상당과 함께 『종용록』 56칙에 나오는 만송의 착어를 인용하였다. 평지의 송은 『종용록』 56칙에 인용되어 있으며, 그에 대한 만송의 평창이 서술되어 있지만, 『염송설화』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아울러 각운은 만송의 착어로 제시된 ‘땅에서 하늘로 오르는 것은 간단하

다(自地昇空易)’라는 구절과 ‘하늘에서 放下하는 것은 어렵다(從空放下難)’라는 구절을 각각 僧密을 今時로, 洞山을 本分이라고 간략하게 해설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설명은 『종용록』의 본칙 평창에서 만송이 제시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독자가 본다면 어떠한 의미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더욱이 『염송설화』에 핑지의 송에 대한 해설도 각운이 간략하게 제시하지만, 만송의 평창을 전혀 인용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서술 방식은 독자에게 『종용록』으로 대표되는 조동종의 공안 비평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비록 인용을 하지 않더라도 각운이 제시한 평창을 통해 의미 파악이 가능하다면 무방하겠지만, 실제 그러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본칙에서 洞山良价와 神山僧密이 개울을 건널 때에 동산이 그대가 개울을 건너는 방법은 무엇인가? 라고 물으니 신산이 다리를 적시지 않는다(不濕脚)고 대답하였다. 이어 승밀이 동산에게 그대는 어떻게 하는가? 라고 물으니 동산은 다리가 젖지 않는다(脚不濕)고 대답하였다. 이러한 대답은 뒤에 나오는 ‘수행에 의해 깨닫고(因修而悟), 凡에서 聖에 들어간다(從凡入聖)’는 것과 ‘먼저 깨닫고 후에 수행해서(先悟後修) 성에서 범에 들어간다(從聖入凡)’는 것의 비유로서 사용되고 있다.

동산과 승밀의 대화에 나오는 다리가 젖지 않는다는 표현은 다리, 곧 몸이 물에 젖어도 본래인은 젖지 않는다는 의미를 보여준다. 이 공안의 주인공인 동산이 석두 계열이므로 마조 계통이 作用卽性을 강조하는 것과 달리 석두 계열이 작용보다는 주인공을 강조하는 선의 전통을 보여준다고 하겠다.³⁵⁾ 또한 본칙에서 승밀이 말하는 ‘如白衣拜相’이라는 向上門은 아직 쉽고, 洞山이 말하는 ‘積代簪纓 暫時落薄’라는 向下門이 어렵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³⁶⁾

35) 小川隆, 『語錄のことは 唐代の禪』(京都: (財)禪文化研究所, 2007), 128~249쪽.

36) 이 표현은 『종용록』 28칙의 본칙 착어인 ‘步步登高易 心心放下難’ 과

따라서 『중용록』 56칙에 제시된 만송의 평창은 전체 내용과 수미 일관하게 연관되는 내용이다. 이러한 평창에 대한 이해는 공안선의 입문자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각운과 같이 간략한 만송의 착어만을 제시하게 되면 그 자체의 함축적인 표현만으로는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적어도 『염송설화』가 독자적인 평창록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라 『선문염송집』에 대한 해설서라는 기본적인 성격을 감안한다면 대단히 불친절한 스타일로 구성된 셈이다. 필자의 추정에 불과하지만 각운이 만송의 평창에서 드러난 바와 같은 조동종의 공안선에 대한 이해를 수궁하지 않았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 필자가 무어라 단정할 수 없지만, 이러한 경향은 『중용록』에서 인용된 평창이 대부분 유사하기 때문이다.

IV. 맺음말

이상에서 『염송설화』에 인용된 방대한 문헌을 분석하고, 찬술 시기, 문헌의 성격과 특징 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이나 과제를 언급하는 것으로 맺음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염송설화』에 인용된 문헌은 불전과 외전으로 구분되며, 특히 선적이 가장 중시되었다. 이러한 문헌은 선의 용어에 대한 주석, 공안 비평이나 재해석과 관련된 배경, 근거, 이해 등과 관련된다. 선적은 전 등사서, 공안집, 어록, 평창록 등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공안선의 흐름을 반영하는 문헌이 대부분이다. 선적 가운데 특히 『조정사원』, 『벽암록』, 『중용록』 등이 가장 중시되었다.

같은 표현이다.

각운이 다양한 외전, 불전을 인용하여 각종 선어에 대한 주석을 제시하는 형식이나 설명 방식은 『조정사원』의 그것과 유사하다. 실제 『염송설화』에는 『조정사원』에서 직접 인용한 주석도 적지 않다. 다만 『염송설화』와 『조정사원』은 저자인 각운과 목암의 사상적 차이나 문헌적 성격의 차이가 있다. 목암이 교선일치론의 주석서를 배제한다든지 외전과 일반 불전을 폭넓게 활용한 것에 비해 각운은 『염송설화』에 규봉종밀, 영명연수, 이통현 등 교선일치론을 표방하는 주석서를 많이 활용하였다. 또한 『조정사원』이 각종 선어에 대한 주석을 초점을 맞춘 훈고서에 가깝다면, 『염송설화』는 용어에 대한 주석보다 공안 비평과 재해석에 초점이 맞추어진 해설서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

『염송설화』에 인용된 선적의 종류가 다양하고, 공안 비평과 재해석에 대한 높은 관심과 깊은 이해는 이 문헌 자체가 문자선의 극성기에 찬술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13세기 후반에서 14세기 초까지 이루어진 가지산문의 일연, 혼구 등의 대표적인 저작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염송설화』는 12~13세기에 고려 선종계에서 공안선이 수용되는 경향을 반영한 문헌이며, 특히 문자선의 성행을 보여주는 저술이다. 또한 인용 문헌을 통해 각운이 저술한 시기는 13세기 후반에서 14세기 초기 사이로 추정된다.

한편, 각운의 공안 비평과 해석이 어떠하며, 공안선에 대한 이해 수준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벽암록』, 『종용록』의 평창에서 인용된 내용이나 그와 관련된 각운의 해석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해보았다. 각운은 『벽암록』, 『종용록』 등의 평창을 가장 많이 인용하였는데, 원오와 만송의 공안 비평이나 해석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각운은 『벽암록』에서 공안 비평의 폐단이나 무사선의 한계를 지적하는 내용을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향은 『염송설화』가 문자선에 대한 관심과 이해에 초점을 맞춘 문헌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한계는 『종용록』의 인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선문염송집』 684칙에 대한 해설에서 각운은 평지정각의 송, 상당과 함께

『증용록』 56칙에 나오는 만송의 작어를 인용하였다. 핑지의 송은 『증용록』 56칙에 인용되어 있으며, 그에 대한 만송의 평창이 서술되어 있지만, 『염송설화』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아울러 만송의 평창은 전체 내용과 수미일관하게 연관되는 내용이며, 조동종의 공안선에 대한 이해를 대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평창이 언급되지 않거나 단순한 인용에 그친 것은 각운의 공안 비평이나 재해석이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이러한 해석은 『염송설화』에 서술된 각운의 해설 전체를 대상으로 보다 치밀한 분석을 토대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여전히 기초적인 연구 단계에서 필자의 평가는 다소 선부른 결론이라고 할 수도 있다. 다만, 다양한 문헌에서 인용된 내용이 『염송설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크며, 각운의 공안 비평과 재해석도 송대의 공안 비평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염송설화』 전체에 대한 연구가 보다 심화되기를 기다려야 하겠지만, 지금의 연구 수준에서 각운의 공안 비평에 대한 이해 수준이 어떠한가를 가늠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표1> 『선문염송설화』의 인용 문헌 일람³⁷⁾

척수	출전	비고
1	『華嚴經』, 『起信論』, 『華嚴經疏』, 『決疑論後記』 『五燈會元』(X80-361a), 『大慧語錄』(T47-842c8) 『碧巖錄』(34칙, T48-173b14), 『碧巖錄』(51칙, T48-186c), 『碧巖錄』(56칙, T48-190b)	
2	『本生經』, 『大慧語錄』(T47-832c)	
3	『普耀經』, 『詩經』大雅, 『大慧語錄』(T47-887c19) 『寶鏡三昧』, 『洞山良价語錄』(T47-526a)*	*『筠州洞山悟 本語錄』(T47-5)

37) 인용 출전은 『선문염송집』의 원문과 동일한 경우나 원문 출전을 그대로 설명하는 경우는 제외하였다. 아울러 인용 출전이 다수인 경우는 최초로 인용된 문헌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표>에서 T는 대정신수대장경, X는 대일본속장경, H는 한국불교전서의 약호이다. 『조당집』은 孫昌武, 衣川賢次, 西口芳男 등이 點校한 中華書局本(2007)을 이용하였다. 『景德傳燈錄』은 『傳燈錄』으로, 『禪門諸祖師偈頌』은 『禪門偈頌』으로 표기함.

	『古尊宿語錄』(X68-183b24), 『祖庭事苑』(X64-378b4)	15 a)
4	『雜阿含經』, 『辟支論』, 『付法藏因緣傳』(T50-298) 『通錄』(2帙), 『付法藏因緣傳』(T50-298b), 『漢書』	
5	『法華經』, 『涅槃經』, 『人天寶鑑』(X87-22b21) 『祖庭事苑』(X64-339a17), 『從容錄』(42칙, T48-254c)	
6	『大集經』, 『祖庭事苑』(X64-323b1), 『從容錄』(1 칙, T48-228a 6, 227c29, 228a3), 『從容錄』(48칙, T48-257c13) 『百丈清規』, 『金剛經』, 『碧巖錄』(92칙, T48-216b21)	
7	『上生經』	
8	『仁王經』 二諦品, 『曉公疏』, 『淨源疏』, 『宗鏡錄』	
9	『入法界體性經』	
10	『四十二章經』, 『孤山疏』	
11	『肇論』	
12	『杭州五雲和尚坐禪箴』 『傳燈錄』(T51-460a), 『圓覺經』	
13	『雜阿含經』	
14	『通明集』*, 『論語』	*『釋氏通鑑』
15	『寶篋印陀羅尼經』	
16	『智度論』, 『釋氏新文集』, 『碧巖錄』(65칙, T48-195c)	
17	『大方便佛報恩經』	
18	『七賢女經』, 『碧巖錄』(18칙, T48-158a) 『臨濟錄』(T47-503b20)	
19	『通明集』, 『物類相感誌』, 『楞嚴經』	
20	『五分律』	
21	『智度論』	
22	『大樹緊那羅王所問經』, 『祖庭事苑』(X64-352a21), 『左傳』	
23	『觀佛三昧經』, 『大集經』, 『新華嚴經論』, 『普曜經』, 『楞嚴經戒環解』, 『周易』	
24	『觀佛三昧經』	
25	『華嚴經』, 『新華嚴經論』	
26	『因果經』, 『新華嚴經論』, 『華嚴經』	
27	『本生經』	
28	『釋迦如來成道記』, 『傳燈錄』(T51-225b) 『大慧語錄』(T47-939a20)	
29	『心印集』	
30	『長阿含經』, 『碧巖錄』(86칙, T48-211b)	

	『祖庭事苑』(X64-321b11)	
31	『寶積經』	
32	『諸佛要集經』	
33	『寶篋印陀羅尼經』, 『水鏡』 『請益錄』(1책, X67-462a19, 462b19)	
34	『祖庭事苑』(X64-423b10)	
35	『大唐西域記』	
36	『翫珠吟』『傳燈錄』(T51-463b29)=『禪門偈頌』(X66-743c18)	
37	『涅槃經』, 『圓悟錄』(T47-786c22)	
38	『華嚴經』, 『華嚴經疏』, 『從容錄』(67책, T48-269a13, 269c2)	
39	『華嚴經疏』, 『新華嚴經論』	
40	『雙釋』, 『法華文句』	
41	『宗鏡錄』(T48-780b)	
42	『正法眼藏』(X67-616b19), 『谷響抄』, 『清涼演義鈔』, 『心賦註』, 『宗鏡錄』(T48-943a19), 『碧巖錄』(51책, T48-187a1)	
43	『華嚴音義』	
44	『涅槃經』	
45	『圓覺經大疏』	
46	『圓覺經疏』	
47	『圓覺經略疏註』, 『從容錄』(45책, T48-256a)	
48	『圓覺經略疏註』	
49	『楞嚴經』, 『戒環解』(X11-790a3)	
50	『戒環解』, 『孤山疏』	
51	『楞嚴經』, 『戒環解』, 『孤山疏』	
52	『楞嚴經』(T19-126a10), 『戒環解』	
53	『戒環解』	
54	『金剛經解義』(X24-518b4), 『圭峯疏』, 『阿含經』	
55	『金剛經解義』(X24-520c17) 『金剛波羅蜜經疏論纂要』(T33-159a18)	
56	『金剛經註解』(X24-773a7), 『曉公疏』	
57	『金剛經解義』(X24-524a22), 『從容錄』(76책, T48-275a16)	
58	『金剛經解義』(X24-527a21), 『宗鏡錄』 『從容錄』(58책, T48-263c2)*	*착어 내용 바뀜

59	『金剛經解義』(X24-532a7)	
60	『黃蘗傳心法要』(T48-385a)	
61	『寶積經』, 唐逸史(鐘馗)	
62	『傳心法要』(T48-380), 『維摩經』, 『法界圖記叢髓錄』(T45-717 c6), 『碧巖錄』(84칙, T48-209c4), 『大慧語錄』(T47-889a17)	
64	『注維摩詰經』	
65	『華嚴經行願品疏鈔』(X5-259a)	
66	『文殊所說佛境界經』	
68	『大般若經』, 『天台教義』, 『般若經』	
69	『祖庭事苑』(X64-324c16)	
70	『祖庭事苑』(X64-386c10)	내용 다소 차이
71	『月上女經』	
72	『賢愚經』, 『感應篇』	
73	『自在王菩薩所問經』	
74	『新華嚴經論』	
75	『祖庭事苑』(X64-428b10)*	*西域記 표기
76	『祖庭事苑』(X64-428b23), 『翻譯名義集』	*西域記 표기
77	『雜寶藏經』	
78	『谷響抄』	
79	『十誦律』	
80	『禪門偈頌』(X66-721b8)	
81	『曹溪觸說』, 『傳燈錄』(T51-215a24, 205c27)	
82	『普耀經』, 『文選注』	
83	『禪門偈頌』(X66-721b12)	
84	『禪門偈頌』(X66-721b18)	
85	『曹洞贊』『重編曹洞五位』(X63-213a8)	
86	『禪門偈頌』(X66-721b24)	
87	『禪門偈頌』(X66-721c3), 『起信論』	
89	『傳燈錄』(T51-209b19), 『別傳宗語』	
90	『祖庭事苑』(X64-374a17), 『林間錄』(X87-278b23)	
93	『禪門偈頌』(X66-722a22)	
94	『傳燈錄』(T51-214a14), 『禪門偈頌』(X66-722b1)	
97	『從容錄』(3칙, T48-229a), 『維摩經注』	

98	『傳燈錄』(T51-219a13), 『碧巖錄』(1칙, T48-140b) 『從容錄』(2칙, T48-228b), 新羅 利貞碑銘	
100	『干正錄』, 『傳燈錄』, 『祖燈錄』 『十玄談』 『傳燈錄』(T51-455b)=『禪門偈頌』(X66-724c)	
101	『五燈會元』(X80-40b24), 『大般若經』, 『法集別行錄』, 『大智度論』	
102	『韓詩外傳』, 『禪門偈頌』(X66-722b19) 『傳燈錄』(T51-220a28)	
105	『金剛經』	
108	『傳燈錄』(T51-222b23)	
109	『林間錄』(X87-248a3)	
110	『林間錄』(X87-277a14)	
112	『仁王經』, 『金剛經』	
114	『傳燈錄』(T51-236b8), 『宗鏡錄』	
115	『傳燈錄』(T51-235b10), 『莊子』	
117	『傳燈錄』(T51-232a3)	
119	『傳燈錄』(T51-240c10), 『重編曹洞五位』(X63-200a4), 『古尊宿語錄』(X68-3a7)』	
120	『古尊宿語錄』(X68-3a20)	
121	『傳燈錄』(X51-240c), 『宗鏡錄』	
122	『傳燈錄』(T51-241a27)	
123	『證道歌琪注』	
124	『證道歌琪注』	
125	『證道歌琪注』	
126	『證道歌琪注』	
127	『證道歌琪注』	
128	『證道歌琪注』	
129	『荊楚歲時記』	
131	『梵網經』	
133	『圓覺經』	
144	『新華嚴經論』	
146	『傳燈錄』(T51-244a7), 『碧巖錄』(18칙 T48-158a) 『從容錄』(85칙, T48-282b1)	
148	『從容錄』(5칙, T48-230b)	
154	『呂氏春秋』	

158	『傳燈錄』(T51-246a9)	
159	『六祖壇經』	
161	『龐居士語錄』(X69-131a11)	
164	『起信論疏筆削記』(T44-318b6), 『碧巖錄』(73칙, T48-200c25)	
169	『莊椿』, 『碧巖錄』(3칙, T48-142c14)	
176	『林間錄』(X87-280c10)	
182	『禪門偈頌』(X66-726a13)	
184	『從容錄』(8칙, T48-232a9)	
188	『從容錄』(23칙, T48-242a26)	
193	『釋迦如來行蹟頌』(X75-43c13)	雲默無寄
194	『圓覺經』	
199	『從容錄』(25칙, T48-243c23)	
206	『涅槃經』, 『義苑』, 『楞嚴經』(T19-112b19)	
207	『祖堂集』(上276-13, 中華書局), 『禮記』	
208	『碧巖錄』(69칙, T48-198c)	
209	『肇論』(T45-159b), 『碧巖錄』(40칙, T48-178b1)	
210	『漢書』	
211	『楞伽經』, 『勝鬘經』	
218	『涅槃經』	
237	『圓悟心要』(X69-496c)	
238	『殺鷄論』	
243	『傳燈錄』(T51-255b)	
249	『僧祇律』	
250	『清涼疏』	
251	『智度論』	
254	『祖庭事苑』(X64-412c)	
256	『天台四教儀』	
258	『楞嚴經』	
269	『莊子』, 『傳燈錄』(T51-255a), 『五燈會元』(X80-76c14), 『擊節錄』(X67-252b10)	
279	『大乘起信論』	
281	『碧巖錄』(74칙, T48-201c27)	
284	『林間錄』(X87-264c18)	

290	『法苑珠林』	
296	『請益錄』(25칙, X67-473)	
304	『佛說陀羅尼集經』(T18-860b13)	
305	『要覽』	
313	『山海經注』	
320	『五燈會元』(X80-110c17)	
326	『從容錄』(7칙, T48-231b15)	
331	『晏子春秋』	
335	『傳燈錄』(T51-312b9)	
336	『太平廣記』	
342	『碧巖錄』(81칙, T48-207b20)	
347	『十道志』	
350	『楞嚴經』	
353	原道篇	
356	『傳燈錄』(T51-264b27)	
365	『周易』繫辭傳	
366	『華嚴經』, 『通錄』	
374	『碧巖錄』(24칙, T48-165a17)	
386	『楞嚴經』	
390	『祖庭事苑』(X64-334c12)	
399	『祖庭事苑』(X64-332a)	
403	『傳燈錄』(T51-268a10)	
407	『馬祖錄』(X69-3a)	
408	『碧巖錄』(45칙, T48-181c24)	
409	『碧巖錄』(30칙, T48-169c7)	
410	『碧巖錄』(9칙, T48-149b6)	
411	『叢隴錄』(T45-719a), 『宏智錄』(T48-2a18)	
412	『從容錄』(10칙, T48-233b9)	
413	『請益錄』(74칙, X67-503b)	
417	『談花』	
418	『碧巖錄』(80칙, T48-206b18, 207a4, 58칙, T48-191b16)	
419	『祖庭事苑』(X64-317a16)	
422	『宗鏡錄』(T48-523c)	

425	『宗鏡錄』(T48-504b)	
426	『聞見後錄』 錢昭度 食梨詩	
428	『祖庭事苑』(X64-324a1)	
429	『從容錄』(39칙, T48-253a)	
430	『請益錄』(23칙, X67-472c20), 陶潛詩, 『太平廣記』	
434	『碧巖錄』(96칙, T48-219a7)	
435	『從容錄』(57칙, T48-263a24)	
438	『碧巖錄』(52칙, T48-187a26)	
439	『從容錄』(57칙, T48-263b15)	
442	『祖源通錄』, 『唐書』	
443	『楞嚴經』	
462	『肇論』, 『放光般若經』, 『金剛經』	
469	『翫珠吟』 『傳燈錄』(T51-463b29)=『禪門偈頌』(X66-743c)*	*『修心訣』 (H4-708b9)
488	『從容錄』(79칙, T48-277c18), 『華嚴經』	
491	『肇論』	
492	崔顥詩, 李白題	
498	『祖庭事苑』(X64-317b6)	
512	『釋韻』	
532	『碧巖錄』(89칙, T48-213c28), 『漢書』 『從容錄』(54칙, T48-261c5), 『杜詩』, 『觀音經』	
533	『五燈會元』(X80-115a19) 船子德誠	
534	『五燈會元』(X80-115b12) 船子德誠	
550	『大義』	
557	『傳燈錄』(T51-321a10) 石霜慶諸	
558	『祖堂集』(上321-1) 石霜慶諸	
560	『金華子』, 『醉翁談錄』	
571	『祖庭事苑』(X64-332a19)	『從容錄』(77칙, T48-276a11)
574	『傳燈錄』(T51-283c9)*, 『大慧語錄』(T47-929b15) 『祖堂集』(下818-8), 『祖堂集』(上384-3)	
576	『杜詩』, 『列子』	
578	『仰山語錄』(T47-584a6)	
590	『大慧語錄』(T47-918c22)	
591	『莊子』, 『楞嚴經』	

597	『大慧普說』(卍正藏59-838a) 姜機宜請普說	
602	『祖庭事苑』(X64-340a5)	
617	『華嚴經』	
628	『論語註』	
629	『臨濟錄』(T47-499a25), 『周本經』, 『李長者決疑論』, 『華嚴經』, 『宗鏡錄』	
630	『大慧語錄』(T47-812c9)	
633	『大慧語錄』(T47-894b11)	
634	羅隱, 醜婦詩	
642	『華嚴經疏』	
659	『周易』 繫辭傳	
662	『大慧語錄』(T47-813b11)	
664	『五燈會元』(X80-142b7) 德山宣鑑	
665	『宗鏡錄』(T48-441a12)	
668	『晉書』 郭璞傳	
680	『寶鏡三昧』 『洞山語錄』(T47-515a22)	
683	『林間錄』(X87-258b7)	
684	『從容錄』(T48-262c12)	
687	『傳燈錄』(T51-320c17)	
689	『洞山語錄』(T47-510c19)	
695	『宋林傳』	
696	『拾遺記』	
700	『抱朴子』	
715	『付法藏因緣傳』	
719	『禮記』	
726	『碧巖錄』(41책, T48-178c20)	
727	『法苑珠林』	
732	『祖庭事苑』(X64-368a7)	
733	『法華經』 方便品	
747	『禪林僧寶傳』(X79-552b1)	
764	『詩經』	
790	『從容錄』(33책, T48-249c2), 『碧巖錄』(49책, T48-184c16)	
821	『楞嚴經』	

826	『孫子兵法』	
855	『禪林僧寶傳』(X79-503b14), 『宗鏡錄』(T48-947a17), 『本草』	
866	『傳燈錄』(T51-335c1), 『涅槃經』	
867	『楞嚴經』	
875	『林間錄』(X87-264a13), 『後漢書』	
881	『十誦律』	
896	『祖庭事苑』(X64-350a12)	
899	『荊楚歲時記』	
900	『華嚴經』	
901	『祖庭事苑』(X64-429b14)	
907	『林間錄』(X87-252c6)	
908	『大唐西域記』(T51-869b4)	
918	『楞嚴經』, 『戒環解』	
921	『寶積經』	
934	『宗鏡錄』(T48-653c26)	
936	『林間錄後集』(X87-276c5)	
939	『祖堂集』(下883-3) 五冠山順之*, 『太平廣記』	*내용 차이
946	『從容錄』(35칙, T48-250b23)	
947	孤山疏, 疎山 『根脚訣』, 曹山室中記	
950	『祖庭事苑』(X64-381b23)	
953	『五燈會元』(X80-39a2)	
954	『法華經』, 『感通傳』*, 『南史』	*실제 무
957	『五代史』	
958	『從容錄』(41칙, T48-254b6)	
967	『傳燈錄』(T51-333b4) 太原海湖和尚	
978	『禪林僧寶傳』(X79-499a7), 『楞嚴經』	
979	『涅槃經』	
980	『楞嚴經』	
981	『從容錄』(81칙, T48-279b27)	
982	『華嚴經』	
988	『從容錄』(72칙, T48-272b22), 『楞嚴經』	
990	『法華經』	
995	『祖堂集』(上129-9), 『楞嚴經』	

998	『正法眼藏』(X67-559b17)=『古尊宿語錄』=『聯燈會要』*	*律藏 표기
1005	『大唐西域記』, 『禪林僧寶傳』(X79-539a10)*	『禪門寶藏錄』 (H6-477下1)
1006	『祖庭事苑』(X64-385b2), 『碧巖錄』(60칙, T48-192b13)	
1011	『碧巖錄』(86칙, T48-211b17)	
1012	『碧巖錄』(62칙, T48-194a15)	
1015	『碧巖錄』(27칙, T48-167c9)	
1016	『祖庭事苑』(X64-316a10)	
1017	『李政文資暇集』	
1019	『圓覺經大疏鈔』	
1030	『清規』	
1035	『杜詩』, 『周禮』, 『太平御覽』	
1040	『楞伽經』, 『成唯識論述記』, 『祖源通錄』 『講益錄』(57칙, X67-487b)	
1042	『碧巖錄』(47칙, T48-183b7)	
1050	末山室中記	
1051	『淮南子』	
1053	『禪林僧寶傳』(X79-554b11)	
1055	『祖庭事苑』(X64-336b18)=『禪門偈頌』(X66-746b16) 『碧巖錄』(16칙, T48-156c)	
1056	『講益錄』(10칙, X67-466b)	
1058	『法眼莊椿叟注』, 『參同契』	
1062	『傳燈錄』(T51-276a26)*	*『五燈會元』
1068	『祖庭事苑』(X64-321c17)*	*祖燈本傳 표기
1071	『弘贊法華傳』	
1077	『太平廣記』	
1081	『華嚴經疏』	
1089	『義苑私記』	
1100	『首楞嚴經集解熏聞記』(X11-739b19)*	『楞嚴經』 표기
1105	『法華經』, 『涅槃經』, 『牟子理惑論』 『弘明集』(T52-4c7)	
1107	『法華經』	
1110	『祖庭事苑』(X64-371b11)	
1118	『太平廣記』	
1121	『閑覽』, 『宗鏡錄』	

1125	『玄沙廣錄』(X73-8c3)=『祖庭事苑』(X64-323c12)	
1126	『宋高僧傳』(T50-745c21)	
1127	『祖庭事苑』(X64-355a9)*	*『古今注』표기
1157	『頌古聯珠通集』(X65-665a5)	
1165	『說文解字』, 『尙書』, 『詩經』	
1172	『續高僧傳』 僧崖傳, 『茶毘維那事』	
1173	『十洲記』, 『影林集』	
1179	『涅槃經』	
1181	『寶藏論』, 『晉書』 王敦傳	
1182	『鵲王經』	
1185	『祖庭事苑』(X64-345b19)	내용 다소 차이
1187	『涅槃經』	
1203	『楞嚴經』	
1205	『寒山詩』	
1212	『宏智錄』(T48-28c6)	
1213	『寒山詩』	
1216	『祖庭事苑』(X64-333a23)	
1217	『維摩經』	
1219	『禪林僧寶傳』(X79-517c7), 『碧巖錄』(13칙, T48-153c22)	
1220	『祖庭事苑』(X64-339c15)	
1221	『碧巖錄』(13칙, T48-154a29)	
1226	『華嚴經』	
1233	『碧巖錄』(12칙, T48-153b19), 『祖庭事苑』(X64-335a22)	
1241	『東觀漢記』, 『天聖廣燈錄』(X78-526a22), 『論語』	
1247	柳宗元 鐵爐步銘	
1248	『寶藏論』	
1250	『祖庭事苑』(X64-389c4)	
1251	『法華現應錄』	
1254	『禪林僧寶傳』(X79-497b9)	
1261	『大莊嚴論』, 『祖庭事苑』(X64-390c15)	
1274	『楞嚴經』	
1280	『彌勒上生經』	
1281	『傳燈錄』(T51-389c8)	

1282	『碧巖錄』(90칙, T48-215a6)	
1298	『維摩經』 觀衆生品	
1308	『梵網經』	
1325	『金剛經』	
1330	『太平廣記』, 『義苑』	
1334	『禪林僧寶傳』(X79-498b)*	*『寶傳記』 표기
1337	『十大弟子行狀』, 『六度經』, 『涅槃經』	
1349	『異聞集』	
1350	『碧巖錄』(98칙, T48-221a)	
1353	『春秋正義』	
1362	『禪林僧寶傳』(X79-506a23)	
1367	『宋高僧傳』(T50-822b15)*, 『禪林僧寶傳』(X79-514a15)	*『要會集』 표기
1369	『禪林僧寶傳』(X79-0526c18), 『從容錄』(64칙, T48-267a1)	
1372	『法華經』, 『戒環解』	
1377	『僧祇律』	
1378	『閑覽』	
1379	『楞嚴經』	
1385	『天台補行記』	
1393	『說文解字』	
1394	清涼 『玄義釋』, 『圭峯注』	
1397	『寶鏡三昧』(X63-211c3)	
1398	『禪林僧寶傳』(X79-508b18)	
1418	『箋』	
1419	『法華經』 普門品	
1435	『傳燈錄』(T51-431c17), 『天台補注』	

<표2> 『禪門拈頌說話』에 인용된 禪籍 일람

번호	서명	저편자	『禪門拈頌集』 본칙	비고
1	『祖庭事苑』	睦庵善卿	3, 5, 6, 22, 30, 34, 69, 75, 76, 90, 169, 254, 390, 399, 419, 428, 498, 571, 602, 732, 896, 901, 950, 1006, 1016, 1055, 1110, 1125, 1127, 1138, 1185, 1216, 1220, 1233, 1250, 1261	
2	『碧巖錄』	圓悟克勤	1, 3, 6, 16, 18, 30, 42, 62, 98, 146, 164, 169, 194, 208, 209, 281, 342, 374, 408, 409, 410, 418, 434, 438, 532, 726, 790, 1006, 1011, 1012, 1015, 1042, 1219, 1221, 1233, 1282, 1350	
3	『擊節錄』		269	
4	『從容錄』	萬松行秀	5, 6, 29, 38, 47, 57, 58, 97, 98, 146, 148, 184, 188, 199, 269, 326, 412, 429, 435, 439, 488, 532, 571, 602, 684, 726, 790, 946, 958, 981, 988, 1369	665 간접
5	『請益錄』	萬松行秀	296, 413, 430, 1040, 1056, 1068	
6	『祖燈錄』	萬松行秀	100	逸書
7	『景德傳燈錄』	承天道原	12, 28, 36, 81, 89, 100, 108, 114, 115, 117, 119, 121, 158, 159, 243, 255, 335, 356, 403, 533, 534, 557, 574, 687, 866, 1435	
8	『天聖廣燈錄』 (1036)	李遵勗	147, 1125, 1241	
9	『五燈會元』	大川普濟	1, 101, 269, 320, 533, 534, 664, 953	
10	『祖堂集』	靜·筠	207, 558, 574(2), 939, 995	
11	『正法眼藏』	大慧宗杲	42	
12	『宗門統要集』	慧嚴宗永	12, 375	
13	『祖源通錄』	西余拱辰	4, 366, 442, 1040	逸書
14	「參同契」	石頭希遷	1142, 1223	
15	「寶鏡三昧」		3, 680, 1397	
16	「翫珠吟」		12, 36	

17	『禪門諸祖師偈頌』		80, 83, 84, 86, 87, 93, 94, 100, 182, 469	
18	『寒山詩』		1205	
19	『重編曹洞五位』	一然	119, 893	
20	『馬祖錄』	馬祖道一	407	
21	『臨濟錄』	臨濟義玄	18	
22	『洞山語錄』	洞山良价	689	
23	『傳心法要』	黃檗希運	60	
24	『龐居士本錄』	龐蘊	161	
25	『馬祖四家錄』	黃龍慧南	178	
26	『四家錄』		120	
27	『大慧語錄』	大慧宗杲	1, 2, 3, 28, 590, 630, 633, 662	
28	『宏智錄』	宏智正覺	1212	
29	『禪林僧寶傳』	覺範惠洪	855, 978, 1005, 1219, 1398	
30	『林間錄』	覺範惠洪	109, 110, 176, 284, 683, 875, 907, 1398	
31	『人天寶鑑』	曇秀	5	
32	『禪苑清規』	慈覺宗蹟	1030	
33	『宗鏡錄』	永明延壽	8, 41, 42, 58, 114, 121, 422, 425, 629, 855, 934, 1121	11회
34	『心賦註』	永明延壽	42	
35	『通明集』	天衣義懷	14, 19	逸書
36	『心印集』		29, 999	逸書
37	『證道歌琪注』	梵天彦琪	123, 124, 125, 126, 127, 128	
38	『寶藏論』	僧肇기탁	880, 1012, 1181, 1248	
39	『戒環解楞嚴經』	戒環	23, 49, 52	

■ 참고문헌

1. 자료

- 『禪門拈頌集』 46책(동국대학교 출판부, 1976)
『한국불교전서』 5, 6책(동국대학교 출판부, 1984)
『高麗大藏經』, 『大正新脩大藏經』, 『新撰大日本續藏經』
이능화, 『朝鮮佛教通史』 下編(신문관, 1918)
柳田聖山·椎名宏雄 編, 『禪學典籍叢刊』 5(京都: 臨川書店, 2000)

2. 논저

- 석종진, 「각운의 『선문염송설화』 연구(I)」 『가산학보』 4(1995)
조명제, 「一然의 선사상과 宋의 禪籍」 『보조사상』 33(2010)
조명제, 「修禪社의 『禪門拈頌集』 편찬과 원오극근의 저작」 『한국불교학』 73(2015)
조명제, 『선문염송집 연구-12~13세기 고려의 공안선과 송의 禪籍-』(서울: 경진출판사, 2015)
조명제, 「수선사의 공안선 이해와 『선문삼가염송집』」, 『한국선학』 41(2015)
조명제, 「고려 후기 공안선의 수용과 『남명천화상승증도가사실』」, 『불교학연구』 50(2017)
石井修道, 『宋代禪宗史の研究』(東京: 大東出版社, 1987)
入矢義高·溝口雄三·末木文美士·伊藤文生 譯注, 『碧巖錄』上中下(東京: 岩波書店, 1997)
小川隆, 『語錄のことは 唐代の禪』(京都: (財)禪文化研究所, 2007)
小川隆, 『續・語錄のことは 『碧巖錄』と宋代の禪』(京都: (財)禪文化研究所, 2010)
小川隆, 『語錄の思想史』(東京: 岩波書店, 2011)
椎名宏雄, 『宋元版禪籍の研究』(東京: 大東出版社 1993)
椎名宏雄, 「圓悟의 『語錄』と『心要』의 諸本」 『印度學佛教學研究』 45-1(1996)
椎名宏雄, 「『禪門諸祖師偈頌』의 文獻的考察」 『田中良昭博士古稀記念論集-禪學研究의 諸相』(東京: 大東出版社, 2003)
椎名宏雄, 「『祖源通錄撮要』と『大藏一覽集』」 『宗學研究』 42(2006)
椎名宏雄, 「『寒山詩集』의 諸本」 『宗學研究』 48(2006)

- 椎名宏雄, 「『寶鏡三昧』の諸本」 『第11回曹洞宗總合研究センター學術大會紀要』
(20 10)
- 末木文美土, 「『碧巖錄』の諸本について」 『禪文化研究所紀要』 18(1992)
- 末木文美土, 「『碧巖錄』の注釋書について」 『松ヶ岡文庫研究年報』 7(1993)
- 末木文美土, 「『碧巖錄』における頌と評唱」 『東洋文化』 83(2003)
- 末木文美土, 「『碧巖錄』評唱に見る圓悟の解釋學」 『田中良昭博士古稀記念論集
禪學研究の諸相』(東京: 大東出版社, 2003)
- 土屋太祐, 「眞淨克文の無事禪批判」 『印度學佛教學研究』 51-1(2002)
- 土屋太祐, 「北宋期禪宗の無事禪批判と圓悟克勤」 『東洋文化』 83(2003)
- 土屋太祐, 「公案禪の成立に關する試論-北宋臨濟宗の思想史-」 『駒澤大學禪研
究所年報』 18(2007)
- 永井政之, 「祖庭事苑の基礎的研究」 『駒澤大學佛教學部論集』 4(1973)
- 忽滑谷快天, 『朝鮮禪教史』 정호경 역(보려각, 1978)
- 柳田聖山, 『禪の文化 資料篇』(京都: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1988)

■ Abstract

Cited literatures and Ideological Characteristics of 『SeonMoonyeomsongseolhwa(禪門拈頌說話)』

Cho, Myung-Je*

『SeonMoonyeomsongseolhwa(禪門拈頌說話)』 is a literature that has been written as a guide to the 『SeonMoonyeomsongjip(禪門拈頌集)』. This book is an important source of understanding not only about 『SeonMoonyeomsongjip』 but also how Gonganseon(公案禪) was accepted and understood after the late Goryeo Dynasty. Nevertheless, very little basic research has been done on the author of 『SeonMoonyeom songseolwha』, the period of writing, content and the meaning of thought. This study analyzed the literature cited in 『SeonMoonyeom songseolwha』 and identified literary characteristics and ideological characteristics.

First, the Buddhist scripture and the non-Buddhist scriptures(外典) was cited in 『SeonMoonyeomsongseolwha』. This literature relates to comments on various terms of Seon Buddhism, background, rationale, and understanding of a work on seon talks.

Second, the greatest of the quotations is the Texts of Seon Buddhism. These texts also reflect the flow of Gonganseon that were popular in Sung Dynasty. Among them, the Blue Cliff Record(碧巖錄), 『Jongyongrok(從容錄)』 and 『Jojeongsawon(祖庭事苑)』 were cited the most.

Third, the composition and comments of the 『SeonMoonyeomsongseolwha』 is deeply reflected in the description of the 『Jojeongsawon』.

* Professor of History and Culture at Silla University
/ woongok@silla.ac.kr

Fourth, analysis of the cited literature shows that the text lines were written at the prevalence of a work on seon talks. The period of writing is also estimated between the late 13th and early 14th centuries.

Fifth, Gakwoon presented various reviews and reinterpretation in the 『SeonMoonyeomsongseolwha』. Gakwoon refers to the Blue Cliff Record(碧巖錄) and 『Jongyongrok(從容錄)』. Moreover, Gaeun does not accept any comments on the abolition of Gonggan criticism or the limitations of Musa-seon(無事禪) in the Blue Cliff Record. This tendency is well illustrated by the fact that 『SeonMoonyeomsong seolwha』 is a literature that focuses on the interest and understanding of a work on seon talks.

Key Words 『SeonMoonyeomsongseolwha(禪門拈頌說話)』, 『SeonMoon yeomsong(禪門拈頌集)』, a work on seon talks(文字禪), the Blue Cliff Record(碧巖錄), 『Jongyongrok(從容錄)』, 『Jojeongsawon(祖庭事苑)』

논문투고일 : 2018.08.12, 논문심사일 : 2018.08.20, 게재확정일 : 2018.09.22.